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 철회 '목청'

인천 부평구의회 결의안 채택 "부평구민 우롱하는 행위 중단"

인천 부평구의회는 2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동호수공원 GTX-B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산검사위원 의결했으며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규영·황미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국토교통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역을 잇는 노선으로 변전소는 2개소가 예정돼 있으나 한 곳은 현재 경춘선 변전소로 운영 중인 마석역의



인천 부평구의회는 2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동호수공원 GTX-B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산검사위원 의결했다.

변전소를 개량, 사용하고 다른 곳은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신설 예정이다.

이 중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설치되는 변전소는 154KV의 전압을 5만5000V로 변압, 노선에 공급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에서 3.3km의 송전선로를 1m 길이로 매설,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구의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주관 설명회에 참석한 구민이 없

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업실시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흔적이 없다"며 "이는 전력공급망 인근에 거주하는 부평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의 '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도시환경위원회의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홍순옥 의장은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조기 추진 강조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임시회 본회에서 5분 발언

인천시의회에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국민의힘·웅진) 의원이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연장 1.8km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예산 총사업비는 약 1000억원) 조기 추진을 주장했다.

신영희 의원은 "연도교 건설은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2011~2030) 및 인

천섬발전기본계획(2022~2026)에 포함돼 있으며 인천시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전략과제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이라며 "내년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해당 노선은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돼 사업 주체가 웅진군에서 인천시로 변경됐다.

신 의원은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웅진군민과의 약속"이라며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 여건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섬 지역 및 접경지역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총사업비 중 국비를 3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소를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의 약 25%인 약 250억원을 지원한다면 인천시에서 약 500억원을 투입해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봉도와 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도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섬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안종삼 기자

보육교직원 3천명 사각지대 놓였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인건비·수당 지원 안돼"

영양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치료사·조리원과 같은 보육교직원 신분이어도 도내 17개의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에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민주당·안양6) 경기도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보육

교직원인 어린이집 근무 영양사·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기준 17개도 자체 11개, 국비 매칭 6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7개 사업 중 영양사,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 2건 외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수당 보조에 몰려있다.

간호사와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이다. 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인 간호사와 운전원은 각각 18명에 불과하다.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수당 보조사업은 0건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 보조 대상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명시돼 있음에도 영양사·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3306명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육교직원으로서 법적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창 기자

의회 단신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준비 마쳐

김용희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김용희(국민의힘·연수2, 사진) 의원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용희 의원은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인천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천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혁신적인 경제 환경을 자랑하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국제적 교통 허브 역할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기업 협력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이미 국제회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도 효율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상회의의 참가자들의 소비



지출이 약 523억원에 달하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조5316억원, 부가가치 유

발효과 8380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 571명 등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인천의 문화·역사적 풍부함을 강조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통해 APEC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이 APEC 정상회의의 개최도시 유치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의 인천유치 특별위원회'는 이 중요한 행사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안종삼 기자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강화해야

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트피공

직자가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공익제보는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정산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공익제보 내용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제도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인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공익제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민창 기자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대의원 임명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주당, 안산5, 사진) 의원이 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대의원으로 임명됐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추천한 3명의 대의원 중 1명이며 대의원 임기는 3년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감염병 등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



하는데 기여한 대한적십자사의 대의원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인종·국가·종교를 초월해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도주의의 가치가 우리 경기도민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창 기자

www.1gan.co.kr

신문과 방송이 만나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일간경기 · 일간경기TV

언제 어디서든 지역의 소식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깊이있는 뉴스를 전하는 지면
한발더 빠른 디지털 뉴스
생생한 현장의 소리 전하는 인터넷방송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대표전화 : 032-508-0006 팩스 : 032-293-5030